

신년 기자간담회

“종도의 종단 참여제도 개선”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종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스님만이 간부가 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에 엄격히 규정해 놓아 애중심 있는 종도들이 종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구니스님들의 종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비구니스님을 총무원 문화국장 겸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 교임국장 등에 임명했습니다.”

1월 30일 신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애중심 있는 종도 육성만이 종단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올해는 종도 교육 강화와 종무 행정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목표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운산 스님은 올해 안에 서울 경기 지역에 상설 교육원을 건립해 종단

의 종지종풍을 다시 종도들에게 알리며, 사찰에서 효율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운산 스님은 또한 최근 신설된 사격조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3000여 종단 산

하의 사찰을 연원적으로 분류해 재산 문제로 종단과 분쟁이 없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은 “분담금 제도로 올해 대폭 개선해 현행 분담금을 지방교구 분담금으로 되돌려 주고, 종단은 승려 의무금을 종단 의무금으로 바꾼 종단예산으로 활용하며, 승려 관리를 직접 총무원에서 맡아 승려의 자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운산 스님은 ▲1사찰 1선형을 통한 사회복지 증대 활동 ▲신도회를 신행회로 재편해 조직 강화 및 활성화 사업 시행 ▲전통불교문화 장담 활동 ▲영산재 파리(3월) 및 중국(10월) 시연 ▲태고총림 선암사 성역화 및 종도 구심사찰 도량화 사업 추진 ▲일본 및 미주 특별총무원 거점으로 해외 포교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전격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종헌종법 합리적 개편할 것”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지난 2003년 개정 공포됐던 종헌 종법에 대한 개정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에 올해 초 종헌종법 개정 작업은 종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총무원장, 호법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애매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잡아 시시비비를 없애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1월 2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새해 계획을 밝혔다. 흥파 스님은 삼보장제를 무명하게 하고 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이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종단 중진스님들의 여론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피력

할 수 있게 추진할 사업이 두 가지 더 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각 사찰마다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의식을 통일하기 위해 통일 불교 성전 및 의식 법요집 발간을 위한 편찬 위원회를 상반기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관음종은 각 사찰 불교의식에 대한 실태파악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종단의 종지종풍에 맞는 통일된 의식집을 발간해 통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흥파 스님은 “하반기 중에 일반, 인도 등의 해외 석학을 초청해 ‘법화사상’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도 개최해 한국 불교를 학문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음종은 1월 18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45차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예산을 53억25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주일 기자

‘전통사찰보호법’으로 규제 일원화

조계종-인수위 1차 실무협의회

전통사찰의 중첩규제 법령을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불교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의 실무위원회는 1월 29일 서울 삼정동 인수위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3일 인수위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불교규제법령 일원화 ▲

(가)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템플스테이 사업예산 지원 ▲폐사지 관리 복원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대통령비서실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현재의 사찰규제 제반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 종무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불교규제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계종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통합 방안에 따른 문화관광부 종무실 존치 여부에 대한 우려 입장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석굴암의 ‘10대 국가브랜드’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과 인수위의 실무협의회는 전통문화 보존에 온 불교계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를 협상을 통해 찾기 위한 것이자, ‘정경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2월 13일 오후 4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를 예산 2억9210만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예산을 2억921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가 주요 사업으로 통과시킨 것은 ▲2월, 제29차 일본대회준비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일본 일한불교사무국) ▲4월, 제29차 일본대회 최종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한국 한일불교사무국) ▲5월, 제2회 여성부민발공양(부산) ▲6월 9일~13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제29차 대회(일본 조동종 중앙사) ▲10월, 제4차 한일 양국 여성부교류대회(제주도) ▲상반기중, 위령사업(일본 정토종 우전사) 등이다.

김주일 기자

“직능대표 전문가 선출”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상정

조계종 직능종 중앙총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3월 임시중앙총회에 상정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후)는 1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중 직능대표선출 조항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법제분과위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능대표 선출을 일반 취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원수좌회와 강원교직자연합회 등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직능대표 후

보자의 해당 전문분야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데 개정 취지가 있다.

특위는 지난 2차, 3차 회의를 통해 윤원·선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문화·행정·법제 등 10개 직능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

정후 스님은 “직능대표 선출기준안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 종도들은 언제든지 특위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지사 : (062)268-1508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호-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지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영상사업단은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자유로이 생생한 메시지로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경영 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 김병현(前 KBS 동인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

김주일 기자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상 중덕·정덕 품수식 봉행

올해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중덕·정덕 법계 품수식이 봉행되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는 만 5세가 제작·배포된다. 또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 품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보성)는 1월 30일 제4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 만 5세의 제작·배포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상 중덕·정덕 법계 품수식 개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품수 신청 구비서류 변경 등을 결의했다.

여수령 기자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입학안내**
 - ◆모집학과 및 정원
 - 법배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 교임교육과 30명
 -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재(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임교육과 : 희망자
 -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반명함판 사진 3매
 - 4) 전형료 5만원
-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 3. 합격자 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 4. 교과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법 배 학 과	의식의 기초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 교 문 화 예 술 학 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 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장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재설비 (도량장엄, 교임새, 지화, 서예등), 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법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문과과정임	사미, 사집과 : 치문, 도서, 선요, 서장, 절요 사 교 과 :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교임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임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불교의식, 생활역학, 사찰경영학, 재설비(도량장엄, 지화, 교임새, 금은전), 승의학, 다도, 꽃꽂이, 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